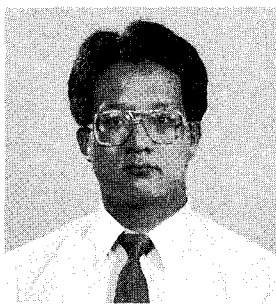


#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낙농육우 산업의 대처방안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축산경제실

**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되어 각종보조  
등이 전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좋은 품질과 위생적인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야겠고  
정부역할을 대신해야할 생산자  
단체들의 활성화는 생산자인  
낙농육우인 자신의 손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시급한 과제**

## 1. UR문제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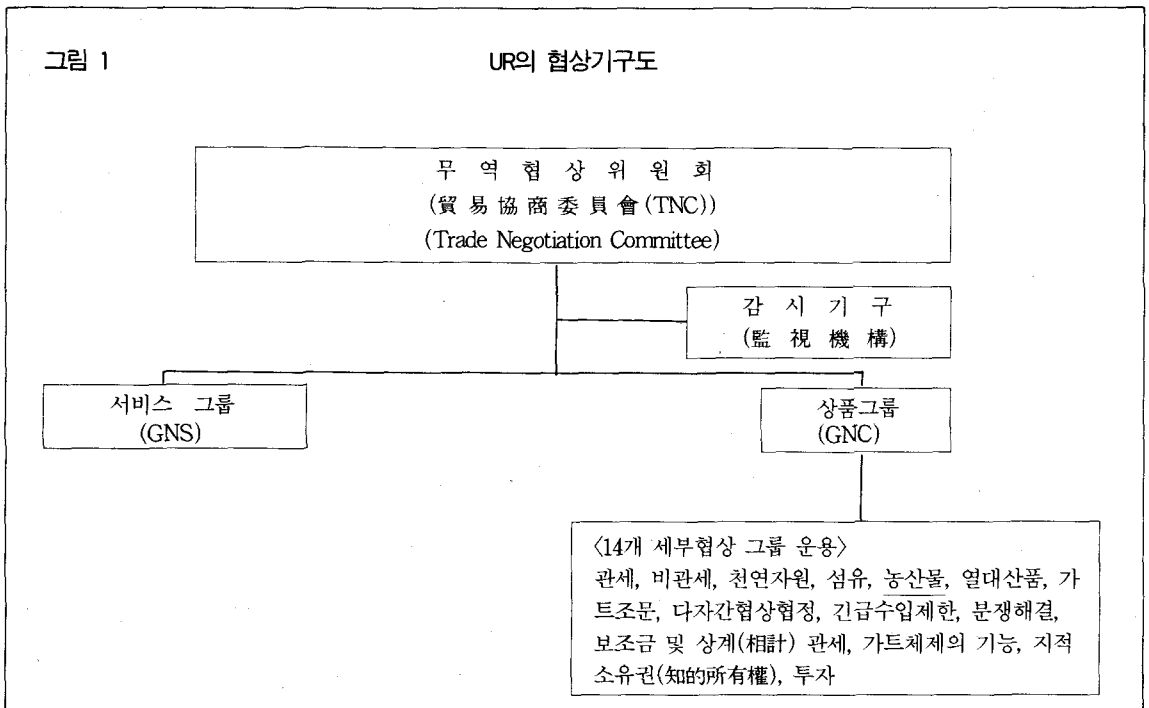
축산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관계로 지방출장의 기회를 자주 갖게된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디를 가도 축산관계업체나 기관, 또는 현수막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전같으면 '소값안정 대책을 강구하라'든지 '조사료 확보 및 증산' 등의 구호였던 것이 요즘에 와서 'UR'이라는 영문표시가 자주 눈에 들어온다. 더구나 TV를 통해서도 UR에 대한 방송을 자주 접하게 되었으니 요즘 관심사가 UR에 대한 문제로 첨예화되어 있는 느낌이다.

UR, 즉 우루과이라운드는 지난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에 있는 Punta del Este라는 도시에서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즉 가트(GATT)회원국 관료들이 모여 세계교역확대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多者間 貿易協商; MTN)을 개시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출범한 가트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이 회의를 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기도 하고 '푼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이라 하기도 한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47년 10월말 23개국이 서명한 이래 90년 3월 현재 전세계의 125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가트 기구가 설치한 회의로써, 기존의 라운드(협상)는 관세인하 쪽으로만 진행되었고, 농산물



은 예외의 경우가 많았던데 비해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15개 그룹을 형성, 그 중 하나가 농산물 협상그룹이며, 이 농산물협상그

룹이 나머지 14개 협상그룹을 선도(先導)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1 참조)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11월까지 협상 초기단계에서는 큰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협상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또 어떤 기본원칙에 따라 할 것이냐? 하는 등의 극히 협상의 기본적인 사항 만을 가지고 논의하였을 정도로 매우 지지부진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때의 논의에 있어 초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보면 배울 점이 있다. UR 농업협상이 1986년 시작된 이후, 국내보조(國內補助)의 완전한 '철폐(elimination)'를 주장하는 미국과 '감축(reduction)'을 주장하는 EC(유럽공동체)가 맞서 난항을 거듭하다가, 지난 4월 양측이 '상당한 수준의 점진적 감축(a substantial and progressive reduction)'에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의 부진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양측간의 단어싸움(?)이 실로 세계의 막중한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것이었던 만큼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국제적 흐름에 둔하다고 표현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어찌되었는지, 일단 돌파구를 찾은 협상은 지난 7월초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협상그룹'의 의장인 드쥬(Aart de Zeew)라는 사람에 의해 비상이 걸리게 된 결과가 되었다. 드쥬의장은 '농업개혁에 관한 합의골격(Framework Agreement on Agricultural Reform Programme)'이라는 협상초안(協商草案)을 마련, 지난 7월 23일 제23차 농업무역협상그룹회의에서 협상초안을 앞으로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a means to intensify the negotiation)으로 사용한다는 데에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상체계(?)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협상의 전망과 우리나라 축산산업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 협상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미국과 농산물수출국들을 대표

하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등 13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EC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과 UR농업협상이 금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로 예정된 가트각료회의에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농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UR협상은 결렬이라는 배수진을 치고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막바지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UR농업협상에서 의장의 협상초안에 반대해오고 있지만, 이상과 같은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가트로 부터 탈퇴를 결심하지 않는 한 UR농업협상을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가트를 탈퇴한다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앞으로 남은 협상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남은 2~3개월은 낙농육우업을 비롯한 우리농업의 사활이 걸린 시간이란 관점에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농업협상그룹 의장 드쥬씨의 이름으로 마련된 협상초안은 보다 자유로운 농산물 무역을 위하여 정부의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점진적 삭감, 수입규제 등 국경조치(國境措置)에 의한 보호장벽의 관세화, 수출보조금 철폐 등 3가지 분야로 되어있다. 만일 위의 초안대로 타결될 경우 예상되는 국내 농업의 장래를 우려하여 농축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의장 초안대로 타결될 경우, 첫째, 쌀을 비롯한 주요 수입금지 또는 수입규제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나 갑작스럽게 완전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의 국제가격과의 차액 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점차적으로 또한 대폭적으로 관세액(關稅額)을 년차적으로 삭감시켜 나가야만 한다.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제까지 자유화시기를 늦출수 있겠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로서

는 예측하기 어렵다. EC가 약 10년정도의 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그 수준 또는 그 보다 약간 더 긴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단시일내에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매비축, 가격예시 등 가격안정정책을 쓸 수 없게되고, 이렇게되면 국내 가격안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게다가 주요 농산물 교역국들의 기상(氣象) 또는 기타 자연적 요인이나 국제적인 농축산물 독과점업체들이 가격조작 등으로 국제가격의 불안이 국내에 파급될 소지도 커지게 되어, 국내 가격불안은 더욱 가중될 공산이 크다. 셋째, 외국농산물의 수입으로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보조금이 감축되면 생산자들은 당장 영농자금을 비롯한 각종 자금을 저리(低利)로 융자할 수 없게되어 생산비의 증가를 초래하게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지금도 농업부문이 투자수익율(投資收益率)이 낮아 농민 자신들도 농업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규모확대,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 등 정부의 투자 마저도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그럴 경우 농업기반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째,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도 어렵게 되어 그나마 몇개 안되던 농축산물의 수출도 타격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유망품목(輸出有

望品目)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제약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수입피해보상(輸入被害補償),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 환경오염방지(環境汚染防止), 방역사업(防疫事業), 유통개선(流通改善), 특정품목에 연계되지 않은 연구기술개발(研究技術開發), 가공산업육성(加工産業育成) 등에 국한되게 된다.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을 비롯한 축산의 장래와 관련하여 볼 때, 지금까지 정부가 축산분야에 지원한 국내보조금(國內補助金)은 미미하다. 근래 축산을 위한 주된 자금은 수입쇠고기 판매차익금(販賣收益金)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이루어진 축산진흥기금(畜産振興基金)인데, 낙농육우부문에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지는 수혜자인 양축가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드류 의장의 각본대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바로 점차적인 삭감대상이 될 국내 축산보조금은 주로 양축자금, 수매비축자금 등 저리융자자금(低利融資資金)의 시중금리(市中金利)와의 차액보상액(差額補償額)이 될 것인데, 이는 연간 농축산물 생산액의 5%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 보다도 국경보호조치의 관세화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수입규제로 묶여있는 축산물들이 수입될 때, 초기에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 만큼을 관세로 부과하여

〈표-1〉 낙농육우산업관련품목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비교, 1986~89

품 목	단 위	1986		1987		1988		1989		'86~'89평균		대 비 (A/B)(%)
		국내가	국제가	국내가	국제가	국내가	국제가	국내가	국제가	국내가(A)	국제가(B)	
젖소(초산)	천원/두	1,392	723	1,258	754	1,631	720	2,008	692	1,572	722	217.69
육 우	원/생체kg	2,487	1,031	2,535	1,078	3,510	1,169	4,335	1,204	3,217	1,121	287.08
쇠고기(냉동)	원/지육kg	3,875	1,119	3,918	1,414	5,500	1,715	6,181	1,764	4,869	1,503	323.92
탈지분유	원/kg	4,300	654	4,300	729	4,300	1,033	4,700	1,453	4,400	967	454.90
전지분유	원/kg	3,875	1,576	3,875	1,180	3,875	1,081	4,300	1,234	3,981	1,268	314.04
버 터	원/kg	3,178	2,316	3,789	1,925	3,789	1,553	4,233	1,405	3,747	1,525	245.76
치 즈	원/kg	7,000	3,278	7,000	3,136	7,000	4,186	7,480	3,110	7,120	3,428	207.73

수입가격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얼마만큼의 기간이 될 지는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관세의 수준을 낮추어나가게 되니, 그 다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낙농육우산업과 관련된 가격통계를 보면서 살펴보자.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가장 심한 품목은 탈지분유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의 무려 4.5% 이상되며, 다음 냉동쇠고기와 전지분유로 86~89평균가격으로 보아 3배를 넘는다. 다음 육우, 버터, 젓소, 치즈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품목들도 모두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와 같이 극심한 가격불안이나 유통부조리 문제 등이 방지된다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축산물생산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러한 품목의 생산기반인 낙농육우산업도 서서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3. UR협상타결에 대처한 낙농육우인의 대응

실로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유사 이래 아주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밖으로는 개방화 물결이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모습으로 목전에 다다라 있으며, 국내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고조로 폐수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줄 곳 상존해온 국내 축산물 가격불안문제, 이에 따른 소득의 불안정, 경영내부의 문제 등, 우리 낙농산업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헤어날 구멍을 못찾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낙농육우인이 택하여야 할 길은 생산성제고를 통한 생산비의 절감과 높고 안전한 품질의 축산물생산으로 상품경쟁에 나아가 이기는 길 뿐이다.

생산비절감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선뜻어디서 줄여야 할 것인지, 어떻게 절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다음 표에서 보면, 우유의 경우 사료비가 전체 비용의 38.1%를 차지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농후사료가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는 비육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료비절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가격도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있어 개방화가 추진될 경우 어느정도는 쉽게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가축비와 노임이다. 가축비의 경우는 소값과도 크게 관련이 있어 이 부분을 절감한다는 의미는 소값하락을 의미하게 되는데, 적정 소 및 송아지값 유지와 종축개량, 생산능력의 향상으로 어느정도 절감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노임의 경우, 자가노력의 평가절하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고용노임에 있어, 민주화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방법이 있다면 고용인력을 자동시설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 이의 최소화 노력을 하는 일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대비하여 양축가들은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수출도 잘 될수 있는 좋은 품질의 그리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지적된 것 이외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기술의 도입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규모의 경제성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규모화와 경영의 합리화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자단체 활성화이다. 이제까지 비난을 면치 못했던 축협도 이제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하루빨리 생산자단체로서의 제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제한될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여야 할 생산자단체들의 활성화는 생산자인 낙농육우인 자신의 손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표-2〉 우유와 비육우와 생산비중 항목별 구성비, 1989

항목	우유	비육우
가축사료비	-	73.6
농후사료비	38.1	11.2
조사료비	31.9	9.7
수도광열비	6.2	1.5
방역치료비	0.8	0.2
수선비	1.8	0.2
소농구비	1.1	0.1
계재료비	0.1	-
고용노임	0.5	0.1
차입금이자	2.8	0.4
종부료	0.6	0.3
임차료	0.9	-
기타잡비	0.8	-
상각비(건물)	0.7	0.1
상각비(대농구)	12.9	0.8
상각비(가축)	0.9	0.3
소계	61.1	87.0
자가노력비	20.2	8.7
고정자본이자	10.0	0.8
유동자본이자	0.2	3.1
토지자본이자	8.5	0.4
비용합계(A)	100.0	100.0

화, 유통부조리 제거를 위한 대폭적인 유통시설 근대화 투자, 기술의 개발보급체계의 확립 그리고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공해 방지를 위한 비용의 전액지원 등 축산물 생산비 인하와 사육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정부지원은 대체로 드류 의장의 초안에서도 삭감 또는 철폐대상이 아닌 허용대상들이다. 또한 김유선 일원화와 우유의 자격차별정책 도입으로 유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극대화, 위생적이고도 높은 품질의 축산물 생산 등은 이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양축가, 생산자단체 및 협회, 그리고 정부가 일체가 되어 힘을 합친다면, 드류 의장의 안이 어떠한 선에서 수정이 되고 최악의 경우 원안대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장래의 낙농육우산업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의 결과가 우리 축산업을 위축시키기 보다 국제화 시대의 주역으로써 경쟁력있는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목장을 할 분을 찾습니다.

인천시 계양동에 위치한 목장용지를 판매합니다.

대지6,000평 잡종지3,000평으로 목장을 했으나 현재는 휴업중이며

자세한 내용이나 구입문의를 하실 분은 인천 전화 573 - 4088(김정연)로 문의 바랍니다.

### 4. UR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

정부당국은 앞으로 남은 UR협상기간 동안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규모확대를 제약하는 여러가지 제도의 정비 및 개선, 축산기자재나 사료곡물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 뿐만 아니라 사료 곡물을 저렴하게 개발수입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의 강